



▲ 크루즈를 떠나기 앞서 참가자들이 리걸 프린세스호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17층 규모인 이 배는 10만톤이 넘는 초호화 유람선이다.

‘어게인 2019!’ 크루즈 1주년 맞아 그 때의 감동이...

“벌써 1주년이 됐네요. 모두들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워요.”

지난해 10월 26일. 단독방에 누군가가 이 같은 글을 올리자 삼시간에 태평양 건너까지 전파됐다. 공감한다는 글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19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열렸던 미 동부와 캐나다 크루즈 여행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갈수록 악화돼 바깥출입이 제한을 받게 되자 크루즈에 관한 추억과 관심이 갑자기 폭증한 것이다.

모두 161명이 참가한 크루즈는 미주 동창회 연합회와 한국의 총동창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였다. 미국 전역에 흩어져

권일중 후배님,
그동안도 건강하시고 매일 재미있게 지내
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총회 사회는 너무도 훌륭하
였습니다. 사모님과의 중도 인상이 있었
고요 기차 배우 놀 웃을 화려하게 단정히
입으시고

저의 부부에게
“종족 보존에 공헌을 하신...”. 지금도
너무 웃어서 ..

창으로 유머도 많으시고 유식하시고 유익
한 사회자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회자 그중에 제
일 다음 회의에 꼭 뵙겠습니다

‘종족 보존의...’ 우스개 회자
모두 161명 참가, 22회 ‘최다’

살고 있는 동문들과 한국은 물론 멀리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도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미주 연합회 총회 겸 해서 열린 크루즈는 뉴욕에서 캐나다 동북부를 왕복 여행하며 동문간의 우정과 선후배의 사랑을 나누었다. 크루즈는 17층 짜리 리걸 프린세스호. 10만톤이 넘는 초호화 유람선이다.

크루즈 1주년을 맞아 가장 많이 거론된 이는 단연 권일준(20회, 뉴욕) 동문. 변인재(10회, 뉴햄프셔) 동문은 “권일중 후배님, 그동안도 건강하시고, 매일 재미있게 지내시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고는 “캐나다에서의 (연합회) 총회 사회는 너무도 훌륭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권 동문과〉 사모님의 춤도 인상적이 었다”고 쓴 변 동문은 “저희 부부에게 ‘종 족보존에 공헌을 하시고...’ 대목은 결코 잊지 못하겠다”고 했다. 참 으로 유머도 많고, 유식하 고... 자신이 지금까지 본 사회자들 중에서 으뜸이라 고 권 동문을 치켜세웠다.

부부가 함께 크루즈에 참여했다는 고혜자(14회, 노스 캐롤라이나) 동문도 “크루즈 모임에서 사회를 제일 잘 보신 분”으로 권 동문을 기억했다.

손난주(10회, 사우스 캐롤라이나) 동문은 크루즈 1주년을 맞아 그날이 그림 다며 글을 올렸다. 자신을 미주 10회 회장으로 소개 한 손 동문은 앞으로 동창 회 행사에 꼭 동참하겠다고 다부진 결의를 보였다.

크루즈 참가자 리스트를 확인한 결과 10회는 세 분 모두 부부동반으로 참석, ‘임꼬부부’로 유명세(?)를 떨쳤다.

동기 카톡방에도 2019 크루즈는 화제가 됐다. 모두 7명이 크루즈에 참가한 18회는 졸업 후 크루즈에서 처음 만난 친구도 있었다. 이들은 배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다 며 1년 전을 되돌아봤다.

크루즈 참가자가 가장 많 았던 기수는 22회. 박흥주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비롯

해 모두 30명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21회 의 28명. 23회도 (고) 손명희 워싱턴 DC 회장을 포함해 16명이나 됐다.

이어 11회 9명, 14회 8명, 18회 7명, 10 회 6명, 16회와 17회 각각 4명 등 순이었 다. 최고참 참가자는 8회의 장효열, 권오 화 동문.

차기후보지 ‘스모키 마운틴’은 부적합 숙박시설 등 부족, 연말 즈 결정될 듯



▲ 댄스파티도 크루즈의 하이라이트.
5박 6일 일정의 크루즈에는 모두 161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 캐나다 관광에 나선 동문들. 크루즈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부터 31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야금의 명인’ 문재숙(23회) 동 문도 참가해 크루즈를 빛냈다. 문 동문은 작은 딸이 ‘미스 코리아’ 출신 여배우 이

하늬다. 큰 딸 이슬기 양도 가야금에 입 문, 문 동문의 뒤를 잇고 있다. 문 동문의 오빠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당초 2020년 총회 겸 여행은 테네시주 의 스모키 마운틴 내셔널 파크로 예정돼 있었다. 그 러나 팬데믹으로 상황이 어렵게 돼 결국 연기하게 된 것.

행사를 주관하게 될 애 틀랜타 동창회는 ‘스모키’ 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을 내놔다. 임혜옥(17회) 애틀랜타 회장은 미국 국 내에서 100여 명, 한국 등 해외에서 50여 명 등 모두 150명 이상의 참가가 예상 되는데 국립공원엔 이처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숙박 시설도, 또 식당도 없어 추 진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 다. 대안으로 멕시코의 칸 쿤이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얘기를 전해들은 신현구(22회, 애리조나) 동문은 군 복무시절 부대 의 취사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며 일정이 잡히면 식 사문제 만큼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장담.

일부에선 올해도 단체 여행은 어려울 것으로 내 다봤다. 코로나 접종이 빨 라야 금년 말 즈에서나 끝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다.

일부 동문들은 “코로나가 우리의 행복, 미래를 빼앗

아 갔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차 기 총회 겸 관광은 연말 즈 가서야 가닥 이 잡힐 것 같다.